

디지털 업보 시대... 올바른 인식이 人文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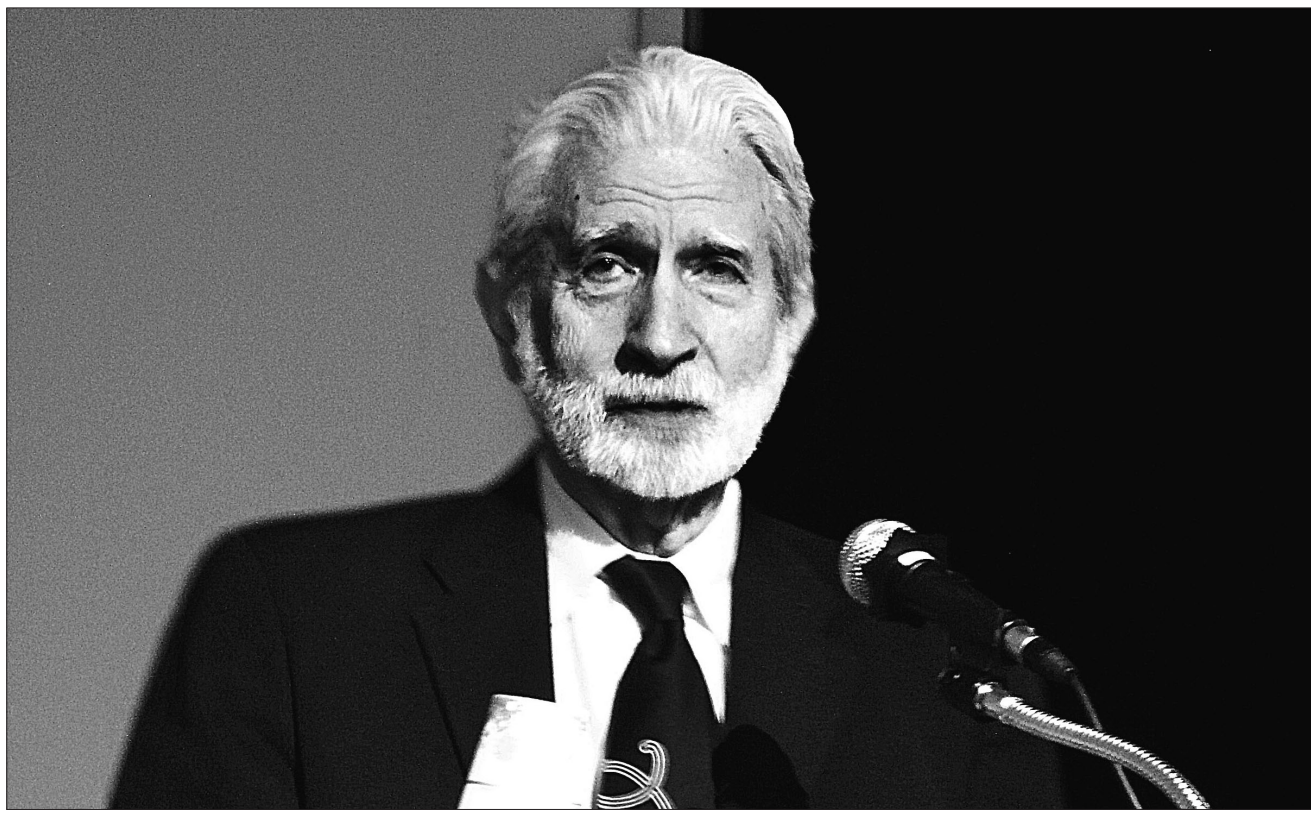
HK연구소협의회 세미나 기조강연

루이스 랭카스터 버클리대 명예교수

국내 43개 대학 인문학국(HK) 연구소 모임인 HK연구소협의회는 3월 25일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컨서트 홀에서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현재와 미래'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불교 석학이자 디지털 인문학 전문가로 잘 알려진 루이스 랭카스터(Lewis Lancaster) 버클리대학 명예교수가 참석해 기조강연을 가졌다.

'디지털 시대의 업보(Karma of Digital Age)'를 주제로 열린 기조 강연에서 랭카스터 교수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산업, 학문, 정부의 '삼중 나선' 속에서 운영되는 대학은 이제 캠퍼스를 넘어 디지털상으로도 '품질관리'라는 통제를 받으며 더 극심한 압박을 겪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현실 인식과 반응을 통해 열린다"고 충고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는... 1954년 미국 남주주대학(USC)에서 불교학 석사, 1968년 위스콘신대학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두 학위 모두 미국 내 첫 불교학 학위다. 1970년 후반에는 미국 종교학회(AAR)에 한국종교분과위원회를 설립했으며 고려대장경 영문목록을 발행했다. 불교 자료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전자문화지도협회(ECAI)를 출범시켜서 세계 디지털 인문학을 이끌어온 세계적 석학이다. 한국에서는 그 공로로 만해대상 포교부문상(2007년)과 대한불교조계종 불자대상(2014년)을 수상했다.

지금 우리가 정보수집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대전환을 맞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출판된 문헌들에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과 '기성세대'인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 사이에서 발생한 세대 격차에 대한 언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스벤 버커츠(Sven Birkerts)가 쓴 <구텐베르크 만가(Gutenberg Elegies)>의 말미에서 저자는 디지털 기술과 조우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자판을 몇 개 누르지만 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료가 다운로드돼 중추신경계를 통해 흩어진다. 따르지 않는 우물처럼 무한한 데이터에 접근해 조작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는 전기회로 속도로 움직인다. 발에서 바위덩어리가 사라지고, 부러진 펜이 사라지고, 아득한 거리는 좁혀진다. 스티븐 디달러스(Stephen Dedalus)는 '역사는 깨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악몽'이라고 했다. 어쩌면 깨달음(awakening)일지도 모르지만 마치 잠자는 내내 맴도는 환상처럼 기묘하기도 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하라(Refuse it)'는 소리가 들린다."(229)

버커츠는 디지털 기술의 사악한 본성에 대해 경고하는 '내면의 소리'를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버커츠와 그의 동료자들을 "디지털 리더이트(Digital Luddites)"라며 신랄하게 비난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저항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이용한 생산에 대항하여 기계화된 직조 및 편직에 사용하는 프레임을 부수던 산업혁명 초기를 떠올리게 한다. 리더이트를 말하는 이들은 기계사용

의 흐름을 막으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적정 가격의 상품을 대량생산하는 '혁명'은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따라서 우리 사회와 정신(ethos)을 규정한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은 세속적 이득을 가져다 줄테니 대신 우리의 영혼을 내놓으라고 유혹하는 파우스트 식 '악마'인가? 버커츠가 들은 '내면의 소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라(Mara)'의 유혹인가? 후자의 해석은 디지털을 현상(現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상의 지배자 마라를 위협하는 새로운 '깨달음(awakening)'으로 보는 시각이다. 마라 역시 자신의 재물에 '내면의 소리'처럼 속삭인다. 마라는 변화를 이루려면 노력은 너무 많이 드는데 보상은 거기에 비해 보잘것없지 않나고 상냥하게 말하며 사람들이 잠재적인 이익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불안하게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

19세기 리더이트들의 주장이 아예 틀린 것만은 아니다. 기계를 쓰는 사람들의 복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놓이게 되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컴퓨터 기계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산업혁명을 굳건히 지켜나갈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산스크리트어인 '카르마(karma, 업보)'로 강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카르마'가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를 모두 나타내는,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다양한 결과가 따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행위자

정보수집 · 통신기술 대전환 도래
기회인가, 새로운 예측 도구인가
'디지털 리더이트' 경향도 나타나
산업 · 학문 · 정부에 영향받는 대학
디지털 상으로 통제 · 압박 극심해
적절한 현실 인식 · 반응 고려해야

의 의도 없이 일어난 결과다. 신기술(행위)을 적용하되 일련의 후속사태(결과)를 완전히 막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3년 전 내가 고려대 여름계절학기 강의를 맡고 있을 때였다. 나는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했다. 나는 시대에 뒤쳐진 사람이 아니었고 디지털 신세계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소곤대기 시작했다. 마침내 용감한 학생 한 명이 나서 "교수님, 저런 이메일을 안 쓰는데요"라고 말했다. 나는 학생의 말에 충격을 받고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이메일을 쓰지 않는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답에 '디지털 원주민'의 방식에 완벽히 발맞추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여전히 이메일

을 쓰시지만 우리는 문자메세지를 쓴다"라고 말했다. 이내 나는 내가 21세기 강의실에 20세기 기술을 강요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업보(Karma)'를 인문학적으로 고찰할 때 업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연구 방법과 연구 전략에 수많은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도래하기 직전까지 학자들은 필사본의 세계(codex world)를 끊임없이 개선해 왔다. 우리가 연구한 내용들은 책으로 엮여 도서관으로 전달되고 목록 별로 분류되고 배포되었다. 출판사들은 작가와 동등한 위치를 점한 검토자들에게 검토를 의뢰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처럼 서로 뜻이 맞고 비슷한 교육을 받은 유사한 판단기준을 갖춘 '동료들(peers)'을 학문적으로 가지고 있고 출판물만한 콘텐츠를 결정하는 공식 결정권자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출판업계 전반, 정보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도서관, 출판사들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자료의 흐름, 소수의 저명한 서평가에 의한 콘텐츠 선정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컴퓨터의 큰 업적 중 하나는 과거에는 결코 불가능했던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널들 간의 인용관계나 인용 여부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 저자가 다른 저널들의 각주에 몇 차례 '인용'되었는

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저널과 단행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쇄본이 지배하던 필사본 시대(codex world)에는 인용색인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디지털 형태로 된 통계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은 우리가 이제 인용횟수만 집계하는 수준을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게재된 문헌들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패턴을 아는 것이 가능해졌다. 인용 시스템과 유명 저널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출판물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데이터 출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 등장하는 데이터의 양도 증가함에 따라 의학계 연구자들도 흥미를 끄는 데이터라면 출처에 관계없이 읽어보고 인용하고 싶어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로 등장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상에서 연구 관련 대화가 훨씬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학 웹사이트 'Academia.edu'에서 이런 열린 대화를 목격할 수 있다. 이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학생, 독립 연구원, 관심있는 일반인을 비롯한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학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샌프란시스코에 근거를 둔 이 웹사이트는 등록회원의 수가 30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라면 무엇이든 여기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인용 측정정보는 디지털 데이터 입력이 인쇄물의 세계를 압도하기 시작했

을 보여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존의 인쇄물을 디지털 형태로 스캔하여 사용자 수백 만 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현재 2,500만 권이 넘는 책이 구글 북스(Google Books)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다. 이보다 더 많은 책을 소장한 도서관은 3,200만 권을 분류/보관중인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유일하다. 수백 만 권의 책을 서둘러 디지털화하여 내놓고 있지만 사용자들에게 참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미진하다. 사용자가 관심있는 용어를 검색하면 단행본과 저널들에서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메뉴'에 나타난 검색결과가 너무 방대하여 일일이 읽어보고 살펴보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

디지털이 교육, 보건, 인지과학, 원격 탐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고 있다. 일부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과거 방식의 데이터 읽기, 연구, 참조, 수집을 신기술이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필사본식 접근법의 대부분은 여전히 모든 연구분야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와 디지털 방식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과거의 방법들이 필요하기는 해도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이 교육계에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한 연구 가운데 하나가 읽기 능력을 다룬 연구다. 부모 및 교사들은 디지털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읽기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는지 우려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읽는' 데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고 한다. 문해력(literacy)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독자들은 여러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능력과 각종 데이터를 단일한 형식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능력에 집중했던 이전의 교육 방식은 광범위한 맥락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분석하는 이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매일같이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이며 우리 삶을 바꾸는 신기술의 도래를 목격하는 시대이다. 이와 동시에 난관에 봉착한 시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시대, 연구 · 학습 방식을 다시 배우고 다시 생각하고 고치는 시대이기도 하다. 디지털화의 흐름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디지털의 영향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곳도 없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에 응당한 결과와 난제를 불러오는 '디지털 업보(Digital Karma)'의 시대이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 75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청강 후 등록 가능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